

## [BOISE] 보이시 주립대학교 교환학생 후기

영어영문학과 이해인

### 파견 기간

2019년 08월 ~ 12월

### 출국 전과 이사 당일

준비할 것이 많다. 비자, sevis fee, 비자 인터뷰 등 미국 입국을 위한 준비 외에 기숙사 신청, 이사 날 선택, 티켓 구매 등이 있다. 들어가는 날까지 고생했는데, 우선 학교 측의 말이 바뀌었다. 미국에 가기 전 학교 선정 기준 중 하나였던 픽업 서비스가 막상 픽업 서비스 가능한 시간이나 장소에 맞춰 티켓을 사려고 하니 그 서비스는 안 된다고 했다. 몇 달 전부터 메일로 물어봤을 때 곧 안내 메일이 갈 거라고 말해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한 그 대신 이사 날 카트를 제공해준다고던 말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카트 없이 친구와 짐을 옮겼다. 차가 있는 친구가 공항 픽업부터 짐 옮기기, 그리고 필요한 물품(침대 시트, 베개, 이불, 커버와 먹을 것) 구매를 도와줘서 괜찮았지만 만약 내가 버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다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음식도 다음 날 구매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사하는 당일은 비행기가 연착되어 4시간 정도를 경유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머물렀다. 입국 심사 줄이 길어 비행기 시간을 넘겼는데, 연착되고 게이트가 변경되고 또 연착되어 다행히 새로 표를 사지 않고도 탈 수 있었다. 짐은 30인치 캐리어 하나와 기내용 백팩 하나를 챙겨 미국에 갔다. 돌아올 때는 미국에서 산 옷이 많아 친구에게 가방 하나를 빌렸다. 항공사마다 수화물 규정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한다.

###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이틀에 걸쳐 열렸고, 시차 적응 중인 사람에게 정말 재밌기도, 졸리기도 했다. 스몰 톡 문화가 활발해서 서로 자유롭게 인사하며 얘기를 나누고 학교 측에서 하는 이벤트 설명을 들었다.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음식은 보통이다. 좋았던 것은, 학교 부서 박람회인데 각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홍보하며 이런 이벤트가 있으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목 동아리? club 홍보 역시도 있어서 이름과 번호 등을 적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이벤트 안내가 날아온다. 물론 의무가 아니라 원할 때만 참석하면 된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IEP(Intensive English Program)라는 활동으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공 수업 같은 정규 수업을 듣지는 않고 영어 집중 과정이라 해당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참고로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대다수가 IEP 학생이었고, 나와 같은 풀타임 교환학생은 만날 수 없었다. 미국은 가깝다고 해도 차를 타야할 거리에 있는 곳이 많아서 차가 필수 느낌인데, 클럽 활동, 여러 이벤트, 친구, 그리고 학교 셔틀 버스, 시내 버스를 통해 시내나 상점에 갈 수 있다.

### 책 구매

미국은 책 값이 정말 비싸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다. 학생들도 알고, 교수님도 알기 때문에 Bronco shop에서 가격 비교를 해서 살 수도 있고, 그냥 온라인 검색으로도 살 수 있다. E-book을 이용해도 된다는 교수님이나 필요한 책을 파일 형태로 올려주시는 교수님도 계신다. 조금 늦게 구매하려 한다면 Bronco shop은 재고가 떨어졌다고 뜨기 때문에 교수님께 E-book을 사용해도 되는지, 혹은 조금 늦게 책을 가지게 되어도 괜찮은지 등을 직접 메일로

문의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 과목 M은 중고 책을 구매, B와 E는 종이책이 필요 없었고, 또 다른 E는 2권의 책이 필요했는데, 두 권 다 새 책으로 구매했다. 원래 계획은 중고 책 대출이었지만 Bronco shop을 보니 대출 기간이 한 학기보다 다 짧아서 포기했다. 그렇지만 오티 기간 동안 수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책을 사고 오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 날씨

맑은 날씨가 주를 이룬다. 비 오는 날이 적고 한국에서 미세먼지 뉴스가 계속 나올 때 숨쉬기 너무 편안해 하며 맑은 하늘을 사진 찍으며 지냈다. 현지 학생들은 후드 집업, 후드티를 애용하는데 가벼운 외투를 들고 다니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다.

### 파트타임, 인턴십

J-1 비자도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의 관련 부서에 허락을 맡아야 한다. 상대 회사나 고용주 측에 비자를 밝히고 서포트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을 할 생각이라면 오리엔테이션 때 tax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두고 이메일을 확인하여 tax form이 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수업

다들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적극적인 분위기이며, 즉흥적으로 옆 사람과 팀을 이뤄 뭔가를 해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 전에 미리 수업 자료를 읽어가야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와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놓고 있어도 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든다. 미리 다 읽어봤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수업시간에 토론만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 드는 강의도 있다. 과제도 이것저것 많다. 하나가 끝나도 계속 있다. 참고로 수업시간은 기본이 75분이다. 수업 시작도 교수님들께서는 절대 늦는 일이 없다. 지각하는 학생들 중에 뛰어서 들어오는 학생을 본적이 없는데, 교수님들도 그 학생이 앞문으로 걸어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 본인이 성적 등에 책임만 진다면 상관없는 느낌.

### 시험

수업을 들은 강의실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테스트 센터에 가서 보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제시된 여러 주제 중 n개를 골라 에세이를 집에서 쓰고 이메일로 제출하라는 교수님도 계신다. 오픈북 시험은 강의실에서 보지만, 이렇다보니 수업 4개 중에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과목은 딱 하나 뿐이다.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구글에 boise state testing center를 검색하고 나온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리셋-재설정 이후 본인의 그룹(과목명, 교수님 이름 맞는지 확인)을 누르고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원하는 시간대로 신청을 한다. 신청이 끝난 이후에는 확인 메일이 오니까 꼭 확인을 잊지 말아야한다. 친구 중에 확인 메일이 오지 않아 뒤늦게 다시 접속해보니 날짜만 고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선택 가능한 시간이 없어져 원하던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시험을 본 경우가 있다.

### 학생증

학생증을 만드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날, 혹은 그 이후이다.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는데 학생증과 함께 wellness pack을 무료로 준다. 잘 찍힌 사진을 기대하지는 말아야하고, pack 안에는 홍보지 같은 종이 몇 장과 상품들(혹은 샘플)이 들어있다. pack 안에 있던 브론코샵 선물 쿠폰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기간 내에 사야한다. 기간은 약 한달 정도로 기억한다. 학생증을 만드는 데에도 \$25를 내야한다. 계산은 카드, 현금 둘 다 가능하다. 학생증 뒤에 BUS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데, 풀타임 교환학생만 붙어있고 IEP 학생들에게는 붙어있지 않았다.

### 한식당

한국인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파는 곳도 있고, 한식당도 있다. 한식당은 비교적 가깝고 한식 마켓은 꽤 멀다. (미국)친구가 일해서 제일 먼저 가보게 된 K fusion은 주인이 한국인이다. 나는 김치찌개를, 친구는 순두부찌개를 시켰다. 김치는 딱 신김치를 이용한 김치찌개였고, 순두부는 매운 정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간도 매운 맛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의 메뉴나 점심 세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맞춰 가는 것도 좋다. 가격이 10달러를 조금 넘기는 해도 한국에서 양식 먹는 가격을 생각하거나, 음식의 양을 생각해보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Mr. wok은 링컨 기숙사보다 suites 기숙사에서 훨씬 가까운데, 식당 내부가 꽤 넓고 메뉴도 다양하다. 비빔밥을 먹었는데, 양념된 고기와 함께 반찬으로 김치, 나물, 다른 모르는 반찬 하나 총 세 종류가 같이 나왔다. 참기름을 많이 뿌려 서빙될 때부터 참기름 냄새가 났다. 돌솥이 아닌 그냥 비빔밥은 뜨거운 밥 느낌은 아니지만 가격이 더 싸다. 떡볶이, 육개장 등도 판매한다.

### 쇼핑몰

Winco는 이 주변에서 가장 싼 식료품점이고, 식료품점이라고 해도 바디워시 등 다른 품목도 판다. 시리얼, 파워에이드, 잼, 식빵, 우유, 바디워시, 말린 과일, 라면, 곡물, 고기, 치즈, 파스타 면, 스파게티 소스 등 다양한 식품이 있는데, 제품 종류도 정말 다양하니 취향 따라 가격 따라 고른다. 물론 비싸고 좋은 상품 혹은 한국에서도 봤던 아는 브랜드의 상품으로 산다면 가격이 좀 올라간다. 예를 들면 켈로그 시리얼, 도브, 오레오오즈 등등. 참고로 라면 구역에는 봉지 신라면, 봉지 너구리, 컵라면 신라면, 튀김 우동 컵라면과 기타 모르는 브랜드의 라면들이 있는데, 봉지 너구리는 맛없으니 꼭 봉지 신라면을 사라는 말을 들어 봉지 너구리는 산 적이 없다. (Wall mart에서 산 얼큰한 너구리?는 괜찮았다.) 사람들이 많이들 사가서 봉지 신라면은 재고가 자주 떨어진다. 미국이라 그런지 고기 가격은 싼 편이고 한 팩에 담긴 무게에 따라 가격을 측정해서 팩마다 가격이 다른 바코드가 붙어있다. 고기 질은 굉장히 좋은데 두께를 스테이크 급으로 두껍게 많이 썰어서 thin cut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기 팩을 주로 샀다. 그래도 두껍다. 음식을 사고 보관할 때 항상 유통기한을 잘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FredMeyer는 생필품을 파는 곳에 가깝다. 이사 당일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커버 세트(침대 시트), 베개 등을 사서 대략 \$50 정도 소비했는데, 가성비를 따지며 촉감과 침대 크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야한다. 커버 세트를 사면 그 안에 베개 커버와 매트리스 커버 말고도 다른 커버가 하나 또 있는데, 매트리스 커버와 이불 사이에 까는 커버이다.

달러트리는 모든 물품을 1달러에- 라는 슬로건을 내건 곳이다. 가성비 갑이자 한국으로 따지면 다이소? 같은 느낌이고, 휴지 4롤, 볼 2개, 탕라멘(미국 브랜드이며 한국식 라면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면 식감은 꽤나 비슷하다. 국물 라면보다 볶음 라면으로 자주 만들어 먹었다.) 5개입 모두가 각 1달러 등 굉장히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탕라멘 말고도 오리엔테이션

때 먹은 치킨 인스턴트 누들(3개입)도 있는데 맛은 먹을 만하다. 링컨 기숙사보다 suites 기숙사에 가깝고, 걸어가면 20~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걸어갈 만한 거리이다.

트레이더조는 음식을 파는 곳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winco보다 자주 갔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추천 제품들이 뜨는데 이 가게의 가장 유명한 'everything but the bagel' 말고는 산 것 중에 실패한 게 없다. 왜 유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다면 해볼 것. winco보다는 가격이 좀 높지만 질, 유기농 등의 이유로 이 가게를 고집하는 (미국)친구도 있었다. 양념된 뇨끼(gnocchi)는 치즈, 토마토 둘 다 추천이다! 트레이더조는 다운타운에 있어 셔틀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로스(loss)는 옷을 사는 쇼핑몰이다.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옷이 왕창 걸려있어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괜찮은 옷을 골라내면 된다. 다만 바지는 다리 길이가 긴 편이라 접어 입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고, 상의는 크롭 상의가 많은 편이다.

### 기숙사

University Suites 중에서 Clearwater에서 머물렀다. 신청할 때는 정확히 어디 건물에 머무르게 될지는 모른다. 그냥 Suites까지 신청하는 게 맞고 그 이후 배정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다. 룸메이트는 본인 제외 3명으로, 한국과 달리 아파트 형태이며 각자 개인 방이 있다. 2명당 화장실이 1개이며, 거실을 기준으로 양 옆이 같은 대칭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탁기와 주방, 식기 세척기까지 있지만 요리 도구 등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사야한다. 나의 경우 초반에 정말 당장 필요한 것만 사고 미국인 룸메가 본인 것으로 같이 쓰면 된다고 해서 친구가 가진 것은 사지 않았다. 거실은 소파와 탁자만이 있어 웅한데 미국인 학생들의 이사 날에 룸메가 TV와 게임기를 갖다놓았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넓은데 건식이라 쓸데 없다. 욕조에 샤워기 호스가 없어 길이 조절을 하거나 몸 따로 머리 따로 씻지는 못하는데, 건식이라 욕조 밖 바닥에는 배수구가 없다. 욕조 안에는 당연히 있지만,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놓고 펼쳐 밖에 물이 최대한 튀지 않게 씻는 걸 잊지 말아야한다. 욕조 내에 있는 장치도 한국의 수도꼭지와는 다른 형태인데, 따뜻한 물을 위해 반 바퀴~한 바퀴를 돌리고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한다. 중앙 난방이라지만 약간의 조절은 가능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지만 겨울에 방이 너무 추워 담요를 사서 밤마다 뒤집어 쓰거나 덮고 살게 만들었다. 이곳은 친구를 정말로 자주 데려오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이라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누가 자고 있기도 한다. 거부감이 좀 있는 편이라면 룸메들과 미리 규칙을 정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처럼은 어려울 것이다.

### 이벤트 가본 이벤트나 학교 주변.

- 학교 내 게임 센터 : SUB 1층에 있고, 볼링이나 당구 등이 가능하다. 학생증을 들고 가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내기로 게임을 하러 가기도 한다. 무료.

- 열기구 : 학교 옆 앤 모리슨 파크에서 한 행사이며, 미리 신청을 하고 아침 7시 15분까지 가면 열기구에 탑승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서 탑승 가능한 날이 아닌 그 전날에 가서 푸드트럭에서 음식도 사먹고 열기구에 불이 켜지는 걸 보며 사진 찍고 놀았다.

- 학교 내 전시 : SUB(Student Union Building) 2층에 전시 공간이 있는데 무료이며 그냥 가서 구경하면 된다.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거나 sub 앞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을 때 슬쩍 가보는 걸 추천한다.

- 풋볼 : 교환학생은 무료로 갈 수 있다. 물론 미리 메일로 오는 안내에 따라 티켓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장에 학생증만 들고 가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 IEP 학생은 돈을 내고 티켓을 사야 한다. 응원의 의미로 보이시 브론코 색깔인 파란색 혹은 주황색을 입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게임 주에는 SUB 1층 브론코 샵에서 세일을 조금 한다. (챔피언 등 콜라보 제품은 가격이 더 나가며, boise state가 쓰여 있어 브랜드 값을 하는 것인지 무난한 제품이어도 가격이 생각보다 더 나간다.)

- 학교 내 이벤트로는, 딱 '미국'하면 떠오르게 밤+비트가 느껴지는 힙한 음악+불빛 링이 함께하는 브론코 나잇, 어디 부서에서 부스를 만들고 무료 스무디나 도넛이나 음식을 나눠주는 이벤트, 여기저기서 자주 열리는 프리 런치 이벤트 등이 있다.

- 한인 교회 : 한인 교회는 링컨 기숙사 쪽에 가깝고, 생각보다 한인이 많아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꽤 있다. 물론, 물어보면 본인이 기독교인인건 아니지만 커뮤니티의 한 일종으로 왔다던가, 프리 런치를 위해, 봉사를 위해 등등의 이유로 온 경우가 많다. 근처 공원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기도 했고, 교회 옆 한글 학교에서 봉사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 기도 등이 있다.

- splatter party : 컬러런이라고 검색하면 이 같은 행사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내 이벤트인데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이벤트라 따로 적는다. 페인트를 뿌리고 노는데, 앞에 무대에서는 밴드가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고 무대 악기 바로 앞에서 학교 스태프가 페인트를 뿌린다. 흰 옷을 입고 가야하는데, 가면 부스에서 그 위에 입을 흰 티를 무료로 준다. 후에 세탁해보니 페인트가 잘 지워지긴 하지만 신발이나 티의 페인트가 완벽하게 다 지워지지 않는 않았다. 그래도 신나게 방방 뛰면서 페인트 물총을 맞으면서 (앞줄에 있는 게 아니라면 많이 맞지는 않을 것이고, 키가 작은 편이라면 옷보다 머리에 훨씬 많이 맞을 것이다. 앞에서 있는 외국인 친구들의 키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몇 번은 아예 맞지 않기도 한다.) 노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티켓은 미리 온라인으로 샀을 때 5달러이며, 현장에서 사면 비싸진다. 이벤트 장소는 쿼드라고 불리는 잔디밭으로, 도서관 앞인데 행사 하루 전부터 펜스가 쳐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apple picking : 사과 따기 체험, 파운드 당 1달러 계산하고 직접 딴 사과를 가져올 수 있다. Honeycrisp 품종은 나무에 분홍색 끈이 매달려 있으며, 달고 맛있다. 한국에 흔하지 않게 어두운 색깔의 자두 같이 생긴 사과는 Jonathan apple로, Honeycrisp보다 덜 달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과의 맛이다. 가을 학기라서 apple picking인데, 봄이라면 사과 대신 체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농장까지는 이벤트 담당자의 차를 타고 간다.

- Fall flights at world center for birds of prey : 학교에서 소개해준 이벤트가 아니라 버디 프로그램 친구와 간 행사로, 차를 타고 가야하는 거리이다. 올빼미와 매 등 훈련받은 보호종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입장료는 10달러가 조금 넘고, 기념품 샵에서 살만한 것은 없다.

- farmer's market : 마트 이름이 아니라,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마켓이다. 한국에서 00공원에서 플라마켓 열린다고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비슷한데, 규모는 꽤 크다. 굳이 뭘 사지 않더라도 구경하면서 걷기 좋다. 뭔가 사고 싶다면 마그넷 같은 기념품을 사는 것도 좋다.

- 할로윈 : 할로윈 시즌은 그냥 파티와 이벤트다. 학교 건물을 꾸미기도 하고, 홈파티를 여는 친구의 친구네 파티에 놀러갈 수도 있다. 파티마다 다 다르지만, 간 파티에서 약을 봐도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술김에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땡스기빙데이 : 엄청 큰 연휴이고 거의 한 주를 쉰다. 이때를 기회로 타 지역이나 외국 여

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별 과제 및 개인 과제가 겹쳐 여행은 못 갔다. 대신 (미국)친구 집에 초대받아 땡스기빙 저녁을 즐기기도 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도 했다.

- table rock : 올라가면 도시가 다 내려다보인다고 한다. 가보지 못했지만 보이시에 가면 다들 가보라고 하는 곳 중 하나다.

- yellowstone national park : 미국 최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데, 가보지 못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독일 룸메는 차를 빌려 금, 토, 일 3일 여행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만족해했다.

● 2020년 1학기에 충남대에서 IEP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꽤 왔다는 현지 친구의 말을 들어 IEP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 이 외에 궁금한 것이나 더 많고 자세한 정보는 [haein0756@naver.com](mailto:haein0756@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